

#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질적 연구

: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 A Qualitative Study on the Self-identity Development of Career Women

: Focusing on Parents-daughter Relationships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전공

석사 정영혜\*\*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전공

부교수 양성은\*\*\*

Consumer and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

Master : Jung, Young-Hye

Associate Professor : Yang, Sung-Eun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litatively investigate how career women form their self-identity in relationship to their parents from the viewpoint of life-span development, and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and forming desirable parents-daughter relationships by developing the substance theory which suits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Korea. In this study, 24 unmarried women who have parents and engage in professional jobs were selected for an in-depth interview.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67 concepts, 29 subordinate categories and 13 categories were extracted during the process of open-coding; a research model was then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paradigm of the grounded theory. It was found that there are three types: the reality-convinced type, the conflict-compromising type and the self-regulated type who "persistently worry about themselves and try to develop". These results verify the process of career women "worrying about themselves and developing constantly" and its structure by forming their self-identities, adjusting the effects of several contextual factors and using mediatory strategies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self-identity.

---

▲주요어(Key Words) : 자아정체감(self-identity), 부모자녀관계(parents-daughter relationships), 전문직 여성(career women),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 근거이론(grounded theory)

### I. 서론

오늘 날 사회 제반 여건의 변화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유능한 여성인력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1999년에는 47.6%, 2010년에는 49.9%로 약간 증가한데 비해, 전문-관리직 종사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1999년에 13.4%, 2010년에는 20.8%로 여성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0). 따라서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전문-관리직으로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차별, 고용 불균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아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저자 : 정영혜 (E-mail : dudgp83@naver.com)

\*\*\* 교신저자 : 양성은 (E-mail : syang@inha.ac.kr)

실현의 가능성을 높여주며,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이러한 하나의 현상으로 최근 들어 알파 걸(alpha girl), 골드미스(gold Miss) 등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여성을 칭하는 용어가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부모들의 남아선호사상이 감소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여성 자녀가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고, 원하는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아졌으며,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된다(Toibert, 1980). 우리가 선택한 진로가 능력 발휘, 거주지, 사회적 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 건강, 가족 간의 관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결정되는데, 우수한 여성들의 전문직 진출 동기 중 하나로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박순희(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적절한 성취압력이 조화를 이루어 신뢰와 애정이 수반된 일관성 있는 부모의 일치된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긍정적으로 발달되어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직업적 성취와 욕구와도 관련이 있다. 정체감의 발달여부는 진로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직업을 준비하고 선택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장지선(2003)은 진로선택이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정체감을 갖추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정혜(1997)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아정체감 양상이 각 발달단계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Josselson(1973)은 자아정체감 발달양식에는 성차가 있다고 하였다. 남성의 자아정체감은 학위나 경제적 성공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확고하게 되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비하여, 여성의 자아정체감은 중요한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는 것으로 내면화된 부모의 제한에 의해서 강하게 통제를 받는 자아의 양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Gilligan(1982)은 자아정체감 발달양식에서 분리와 애착이라는 두 가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였는데 청년기에는 정체감 형성과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성으로 나타나고, 성인기에는 독립적인 직업생활과 성숙한 애정관계로 재등장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간관계 중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이 경험하는 최초의 관계이며, 부모는 개인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초기부터 이후의 발달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오랜 세월을 걸쳐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관계이다. 부모는 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방법,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관계나 진로선택 등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을 내릴 때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이기숙 등, 2009).

개인의 정체감은 그 정체감이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으며(Jones, 1997), 자아정체감은 생태적으로 미리 짜여져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달된다(양성은, 2005). 박아청과 이승국(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지영(2003)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가는 시기로 부모에 대한 분노, 원망,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권현미(2010)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여자대학생의 자아강도가 높았으며,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았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전문직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신의 개인적 자질이나 특성,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와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부모는 여성도 전문적인 일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며, 부모가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모델을 제공하거나 자기 일을 갖지 못한 여성으로서의 상실감을 보여줌으로써 전문직을 갖게 되기도 한다(윤형숙, 1999). 또한, 최근 아버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데, Kindlon(2007)은 우수한 여학생들은 아버지로부터 남성이 일하는 방식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함으로써 후천적으로 남성성을 습득하며, 선천적으로 타고난 여성성이 함께 조화를 이룬 양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가 전문직 여성이 직업을 갖기까지의 과정과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자아정체감은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특성이 영향을 받고, 일생동안 계속해서 발달하는 과정이며 다양한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대학생 시기 등 한 시점의 부모자녀관계를 연구해온 것이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고 전문직 여성자녀는 성장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자아정체감이 발달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맥락을 중심으로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에서 부모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회·심리적 맥락을 고려하여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문직 여성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정체된 한 순간이 아닌 변화하는 자아정체감의 발달과정을 밝히고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심리적 과정에 대한 접근을 위해 Corbin과 Strauss(200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분석은 Corbin과 Strauss(2008)에 의해 제시된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각 단계를 순환적으로 반복하기도 하였다. 개방코딩(open coding)은 원 자료를 분해하여 개념을 도출하고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자료들의 수준들을 명명하는 개념화 작업을 통해 범주화해나가는 분석과정이다. 축 코딩(axial coding)은 한 범주를 축으로 개념들과 범주들의 관계를 순차적 과정으로 나타내며 자료 안에서 주요 범주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타내고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분석이다.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핵심범주를 선택,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모든 범주를 정교화 하여 이야기 윤곽을 만들고,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진술문을 통해 이론을 정교화하며 유형을 분석한

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조건인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들이 미시적 조건과 거시적 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황모형을 통해 설명한다. 상황모형은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틀을 만드는 근거이론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며, 중심현상에 대한 보다 완벽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한다.

### 1. 연구참여자

근거이론에서 연구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참여자를 인위적으로 표집 하는 것이다(Corbin & Strauss, 2008). 이론적 표본추출방법(theoretical sampling)에 따라 통계청(2007)에서 발표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전문가 및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에 종사하며, 부모가 현재 생존해있고, 연령은 만 40세 이하의 미혼인 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근거이론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규모를 미리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다(Morse,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24번째의 참여자에게서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고 포화상태를 느끼게 되었을 때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코드	연령(만)	직업	경력	학력	형제자매
#1	26세	큐레이터	2년	학사졸업	1남2녀 중 셋째
#2	27세	약사	4년	석사과정	1남1녀 중 첫째
#3	38세	교수	5년	박사졸업	1남1녀 중 첫째
#4	30세	한의사	4년	석사졸업	1남1녀 중 둘째
#5	27세	약사	3년	학사졸업	1남2녀 중 첫째
#6	29세	한의사	4년	석사졸업	1남1녀 중 첫째
#7	29세	치과의사	5년	학사졸업	1남1녀 중 첫째
#8	29세	공인 노무사	3년	학사졸업	1남1녀 중 첫째
#9	29세	치과의사	6년	학사졸업	1남2녀 중 첫째
#10	30세	내과의사	6년	학사졸업	1남2녀 중 첫째
#11	27세	신문기자	2년	석사수료	1남1녀 중 첫째
#12	28세	방송국 PD	3년	학사졸업	무남2녀 중 둘째
#13	33세	신문기자	11년	석사수료	무남독녀
#14	26세	신문기자	2년	학사졸업	1남2녀 중 첫째
#15	34세	신문기자	11년	박사졸업	1남1녀 중 첫째
#16	26세	공인 노무사	4년	학사졸업	무남2녀 중 둘째
#17	36세	국회의원 보좌관	9년	학사졸업	무남3녀 중 첫째
#18	31세	주임 연구원	3년	박사과정	1남2녀 중 첫째
#19	28세	약사	3년	학사졸업	1남1녀 중 첫째
#20	28세	정당 대변인실	3년	석사수료	무남2녀 중 둘째
#21	27세	방송국 아나운서	3년	학사졸업	1남1녀 중 첫째
#22	33세	치과의사	9년	학사졸업	1남1녀 중 첫째
#23	29세	치과의사	6년	석사수료	1남2녀 중 셋째
#24	29세	건축설계디자이너	3년	석사졸업	1남3녀 중 셋째

## 2.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근거이론에서는 모든 것이 자료이다. 연구자는 면접, 메모, 문헌, 기타 여러 형태의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데 (Glaser & Strauss, 1967),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심층면접방법을 사용하고 현장노트와 연구자의 생각을 적은 메모를 적극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면접횟수는 1회였고 면접 소요시간은 평균 1시간 20분이었으며, 면접내용은 MP3와 디지털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취하였다. 면접질문은 현재 직업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 부모와의 관계, 성장과정에서의 경험, 미래의 직업과 결혼에 대한 계획이었으며, 질문내용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되거나 수정 혹은 제거되었다. 또한 면접 전후에 작성한 현장노트 및 메모를 통해 연구자의 생각변화와 참여자에 대한 생각 및 행동을 자료로 참고하였다.

면대 면으로 만나는 면접을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어 참여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됨에 따라, 연구자는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면접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한 장은 연구참여자가, 한 장은 연구자가 서명하여 동의서를 각각 한 장씩 보관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를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저는 지금 그 아까 신뢰감을 주는 동의서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많은 말을 했어요.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1)

또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 철저히 비밀보장을 하고자 참여자의 이름을 코드화하여 처리하였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참여자가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회상하게 되면서 정서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려 노력하였다.

이게 약간 제가 정신과 상담, 근데 지금까지 물어보았던 질문들을 솔직히 제가 스스로 많이 반추 해보고 해서. 하지만 또 아까 가장 즐거워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런 건 스스로 잘 모르겠는데 역시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도 나름 정리가 되고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은 항상 정리를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 4)

제가 지금 보여 지는 모습보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꿈꾸고 있는 것,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 20)

참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솔직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고, 면접이 종료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나타내기 위해 자료를 분해하여 개념을 도출하고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화해나가는 분석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취된 자료를 그대로 전사하고 전사본을 반복하여 수차례 읽으며 의미 있는 단어나 구문에 체험코드(in-vivo code)를 부여하고, 개념을 찾아 명명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자는 종이에 체험코드를 프린트하여 수작업으로 범주화하였다. 과정을 일부 소개하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개념화 과정



<그림 2> 범주화 과정

둘째, 축 코딩은 정교한 분석과정으로 한 범주를 축으로 개념들과 범주들의 관계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연결시키는 것이다.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에 의해 범주가 위치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순차적 과정을 나타내는 과정분석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러다임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 후, 범주들을 여러 과정에 대입시켜보고 다양한 경우의 수로 모형을 만들어 가장 적합한 모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선택코딩은 맥락을 위한 분석으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핵심범주를 선택하여,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모든 범주를 정교화 하여 이야기 윤곽을 만들고,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진술을 통해 이론을 정교화하고 유형을 분석한다. 상황모형을 통해 중심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조건과 작용/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주를 정교화하고 핵심범주를 도출해내며 몇 가지 도표를 만들어보았고, 상이한 범주와 하위범주들을 계속해서 수정해나가며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 4. 연구의 타당성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이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로서 Lincoln과 Guba(1985)가 연구결과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추구하고자 제시한 신뢰성, 전이가능성, 의존성, 확증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첫째, 신뢰성(credibility)은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연구자는 가능한 분명하게 참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후, 자료에서 추출한 개념이 그들의 경험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등을 질문하여 참여자 확인과정을 거쳤다. 확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의 유형분석,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고 제가 어느 유형인지 대변에 알 수 있을 만큼 공감입니다. (# 19)

부모님과 관계와 관련된 부분의 정리가 훌륭했다고 봅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정 변화를 정리한 부분은 본인의 생각을 매우 명료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인의 감정 상태와 특히 진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분명 혼란스러운 부분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현재 위치와 활동에 만족하는 정도가 더 큼니다. 그러나 연구자의 정리와 해석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

니다. (# 20)

둘째,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은 양적 연구에서 외적 타당도의 개념과 유사한 일반화와 비교될 수 있는데, 연구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도 적합한지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자신의 고유한 경험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 있고 적용가능하지를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직 여성 2인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적용 가능한 지 검증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연구 비참여자들의 특성으로 비참여자1은 연령은 만25세, 직업은 약사이고 1남1녀 중 출생순위는 첫째였다. 비참여자2는 연령은 만24세, 직업은 방송국 기자이고 1남1녀 중 출생순위가 둘째였다. 연구 비참여자들의 평가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한다는 부분이 나와 일치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민과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발전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같고 이런 점이 나에게 위안과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주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참여 자 1)

하위범주의 개념이 명확하고 분류도 제대로 돼있습니다. 개방코딩에서 부의 지지와 모의 현상으로 구분한 부분 공감합니다. 한국적 가정환경의 표본을 잘 드러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기술하면 다소 방임적이고 자녀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도록 한 가정의 자녀가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진로도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유형 중) 자기 주도형입니다. (비참여자 2)

셋째, 의존성(dependability)은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하며 양적연구에서는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동일한 참여자들이 상이한 맥락에 있을 경우나 상이한 참여자들이 유사한 맥락에 있는 질문을 반복했을 때 연구결과들 간에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또한, 연구자가 사용한 분명한 자취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가면서 연구자의 자료의 자료, 시각, 상황에 전혀 모순되지 않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이외에 동일 전공 석사과정 수료생 1인과 교수 1인의 자문을 구하여 의논을 거쳐 내용을 수정 혹은 추가하였다.

넷째, 확증성(confirmability)은 양적연구의 객관성에 해당

되는 개념으로, 다른 연구자들과의 의견교환이나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자신이 연구에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확보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문단을 포함한 동료 연구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연구 목적, 의도, 결과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메모를 통하여 연구자 스스로 의식적인 노력을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개방코딩 결과

근거자료를 토대로 개방코딩 과정을 거친 결과, <표 2>와 같이 최종적으로 63개의 개념과 29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2>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에 개념의 범주화

개 념		하위범주	범 주
•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심	• 나에 대한 믿음	부모의 지지	부모의 양육방식
• 나에 대한 기대	• 자기발전 하기를 바라심	부모의 기대	
• 나를 자랑스러워하심			
• 부의 격려와 조언	• 부와 더 잘 맞음	부의 지지	부와 모의 역할
• 모의 사회생활에 대한 아쉬움	• 모의 헌신적인 노력	모의 희생	
• 나에 대해 고민했던 사춘기	• 힘들었던 경험이 도움 됨	자기성찰의 시간	자아정체감탐색
• 현재 사춘기를 겪고 있음	• 나에 대해 잘 모르겠음	제2의 사춘기가 옴	
• 직업이 나와 잘 맞는지 모르겠음	• 또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음	진로에 대한 고민	
• 부모를 닮아있는 내 모습	• 닮고 싶은 부모의 모습	부모의 영향을 받음	부모를 모델링
• 서로 보완이 되는 부모님	• 성숙해진 부모님의 관계	부모님 두 분의 관계	
• 남자친구의 지지와 존제감	• 주변관계의 영향을 받음	주변의 기대와 격려	사회적 지지체계
•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것			
• 형제는 또 다른 지지관계	• 성격이 다른 나와 형제	나와 형제의 관계	부모로부터 분리됨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됨	• 돌봐야 하는 존재로 변함	부모에 대한 생각이 변함	
• 부모님을 이해하게 됨			
• 부모님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함	• 부모님과 다르게 살고 싶음	부모님과과는 다른 내가 되고 싶음	성취에 대한 욕구
• 스스로 인정해야하는 나	• 경쟁심으로 열심히 공부함	내·외적인 목표	
• 희망에 차 있었음	•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	성취에 대한 기대	
• 꿈꾸던 것을 이루게 됨	• 일에서 보람을 느낌	성취감을 통한 기쁨	직업에 대한 평가
• 일에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음	• 자기만족감을 느낌	직업에서의 장점	
• 전문성이 적은 업무	• 사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	직업에서의 단점	
• 좋아하던 것이 현재 영향을 줌	• 직접 경험해보고 느낌	흥미와 적성을 깨달음	진로탐색과정
•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을 함	• 간절함이 생김	능동적으로 탐색함	
• 꿈과 멀어졌을 때 힘들었음	• 대입·취업준비과정이 두렵고 불안했음	목표에 대한 불안함	
• 일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음	• 사회적 인정을 받음	여성으로서의 장점	여성으로서의 정체감
• 가능성이 많고 경계가 없음			
• 남녀차별을 겪음	• 가정과 육아를 생각해야 함	여성으로서의 단점	미래의 결혼과 부모관
• 일과 가정 모두 잘 하고 싶음	• 결혼보다 일이 더 좋음	결혼에 대한 생각	
• 남편과 가사·육아를 함께 해야 함			
• 자녀양육에 대한 두려움	• 자녀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음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일을 통한 자아정체감
• 일이 나를 대표함	• 사회에서 의미 있고 싶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	
• 대체가능성이 없는 것	•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것	전문직에 대한 기준	
•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음	• 계속 공부하고 발전해야 함	도태됨에 대한 두려움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음
• 더 발전된 사람이 되고 싶음	• 학문에 대한 갈증이 있음	발전하고 싶은 욕구	

2. 축 코딩 결과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에 관한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하고 재배치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이 과정은 중심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인과적인 사건, 맥락, 중재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에 해당하는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을 발견할 수 있다.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은 범주의 관계적인 진술로 나아가게 하고 자료를 더 조직화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범주의 속성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차원을 제시하여 경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축 코딩의 패러다임에 포함된 주요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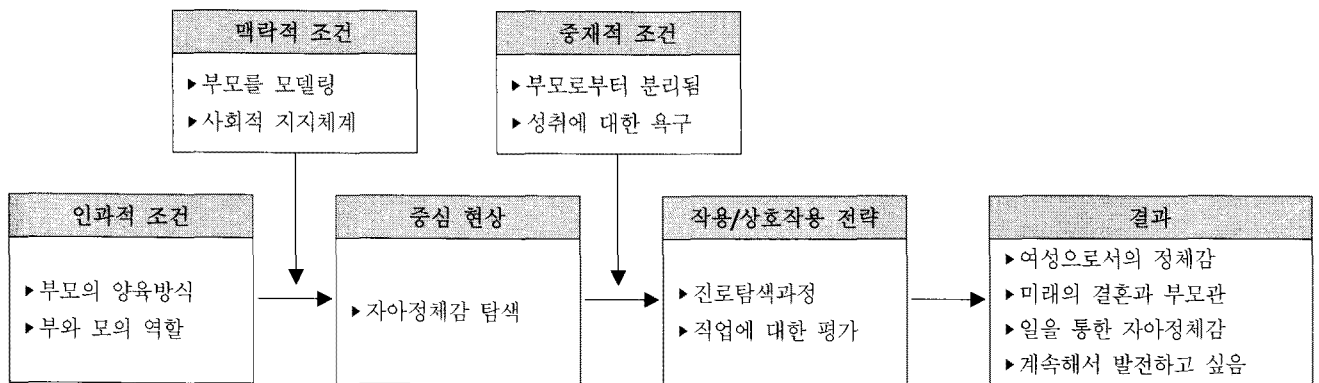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된다(Corbin & Strauss, 2008).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통해 나타난 “자아정체감 탐색”이라는 중심현상

을 일으키는 인과적 조건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와 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의 범주들은 본질, 즉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이후의 범주들과 다르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은 이후의 모든 범주에 선행해서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과 유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주로 이해되었다.

(1) 부모의 양육방식

참여자들은 성장 시기에 부모님의 신뢰를 받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음으로서 나에 대해 마음껏 탐색할 수 있었다. 부모가 참여자에게 자유롭게 흥미와 관심을 탐색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한 것이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실제로 참여자들은 부모가 지지를 보 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동시에 참여자들의 부모님은 성장과정에서 학생이 당연히 해야 할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강요나 큰 압력이 아닌 자신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였고 참여자를 믿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였다고 하였다.



<그림 3>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축 코딩

<표 3> 패러다임 모형에 포함된 조건의 속성과 차원

패러다임	범 주	속 성	차 원
인과적 조건	부모의 양육방식	본질	부정적 ↔ 긍정적
	부와 모의 역할	본질	부정적 ↔ 긍정적
중심 현상	자아정체감 탐색	본질	부정적 ↔ 긍정적
맥락적 조건	부모를 모델링	강도	약함 ↔ 강함
	사회적 지지체계	강도	약함 ↔ 강함
중재적 조건	부모로부터 분리됨	정도	부분적 ↔ 전체적
	성취에 대한 욕구	강도	약함 ↔ 강함
작용/상호작용 전략	진로탐색과정	태도	소극적 ↔ 적극적
	직업에 대한 평가	만족도	만족 ↔ 불만족
결 과	여성으로서의 정체감	본질	부정적 ↔ 긍정적
	미래의 결혼과 부모관	본질	부정적 ↔ 긍정적
	일을 통한 자아정체감	강도	약함 ↔ 강함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음	강도	약함 ↔ 강함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시고 만약에 뭐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 혼내시고 이렇게 좀 하셨는데 직업적으로 어떻게 “넌 뭐가 돼야지” 뭐 이런 걸 하신다거나 뭐 공부하라고 재촉을 하시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그런 강요 같은 건 없었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을 쪼는 게 없으셔가지고, 뭐 강요하거나 이런 게 없으셨어요. 그게 좀 다른 거 같아요. 다른 부모님들 보다는, “공부해야지” 뭐 이런 말씀도 많이 없으셨고. (# 2)

초등학교 때는 제가 뭐가 하고 싶다고 하면, 바이올린도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고, 영어 학원 다니는 것도,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해주시고 그랬던 거 같은데. 과외도 해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 해주시고, 음... 다 해주셨던 거 같은데, 고등학교 때도 어떻게 보면 “다녀라, 다녀라” 해서 다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억이.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옆에서 지원해주셨던 거 같은데, 생각해 보면. (# 9)

## (2) 부와 모의 역할

참여자들의 부모는 자녀에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지지하였다고 한다. 부는 주로 고민이 있을 때의 조언자가 되고 간헐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반면 모는 헌신적으로 자식을 뒷바라지했으며, 직업적 성취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진취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었다고 한다. 참여자에게 부모 각자의 적절한 역할이 있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작용하였다.

엄마가 제일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내가 엄마 자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학생 때는. 항상 아침에 엄마가 깨워주고 내가 잘 때까지 엄마가 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친구였던 거 같아요. 왜냐면 내가 공부 할 때 옆에 앉아있거나 옆방 방에 같이 앉아서 하진 않았지만, 엄마가 항상 방에 있다는 걸 알았고. (# 7)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 날.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달라질 게 없는데 어 나는 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생각할 때는 네가 없어진다면 세상에서,” 부끄러운데,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구 자전축이. “아빠가 생각할 때는 네가 여기 딱 지평이 없어지면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 거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 14)

## 2) 중심 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다(Corbin & Strauss, 2008). 본 연구에서 작용/상

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현상은 “자아정체감 탐색”이다.

### (1) 자아정체감 탐색

참여자들은 성장기에 사춘기를 겪을 시기에는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학업에 대한 성취와 기대와 관련된 자기를 고민했다. 하지만 현재는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등 나에 대해서 정의내리기 위해서 알아가는 중인 제2의 사춘기가 온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자기에 대한 탐색이 계속해서 진행 중임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만족하면서도 자신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대학을 와서 성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원래 내 성격이 이런 거였는데, 부모님이 워낙에 그렇게 잘 모든 걸 다 가이드를 해줘서 내가 거기 묻혀왔던 게 아닌가,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아 정체감이 아직 형성이 안됐다고도 얘기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골치 아파요. 지금 사춘기가 또 온 거 같아, 오춘기. (# 3)

대학을 잘못 들어가서 1년 재수했던 거, 그때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뒤돌아봤을 때는 나에게 되게 좋은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그 시기를 겪으면서 “아, 사람이 못하게 없구나. 열심히 하면 다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죠, 보면 좋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 6)

“나는 진짜로 뭘 하고 싶을까”가 지금도 여전히 고민이에요. 약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직업란에 당당하게 쓰면서도 불만족스러워 하는 건 있으니까, 나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 19)

###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일련의 속성들이 구체적인 장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여 수행하고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Corbin & Strauss, 2008). 본 연구의 맥락적 조건은 “부모를 모델링”과 “사회적 지지체계”이다.

#### (1) 부모를 모델링

참여자들은 부모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부와 모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복합적으로 닮아있다고 하였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과 생각에서 닮은 점을 발견하며 자신에 대해 알아



갔고, 현재의 자신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 닮았어요.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하다 보면 “이것도 엄마 아빠하고 있던 거 내가 하고 있다. 일처리 하는 거는 아빠랑 똑같고, 뭐 교육하고 이런 거 측면에 있어서는 엄마에 성격을 많이 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못 믿으시겠지만, 나한테는 엄마 반, 아빠 반 이렇게 있어서 “이미 닮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 남들 보기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똑같으니깐 싫죠. (# 3)

다 닮았어요. 똑같아요. 크면서 더 분명해지는 게 똑같아요. 진짜 부모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이제 완벽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가지고 참고 꼭 참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보면 다 일일이 신경 쓰고 있고, 하나 하나 다 훈계하고 교육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똑같은 거 같고... 생활스타일은 엄마랑 거의 똑같이 따라가는 것 같고 생각 사상은 아빠를 닮아가는.... (# 7)

#### (2) 사회적 지지체계

참여자들에게 부모 이외의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체계가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의미였다. 주변 친척이나 교사의 직업적 모델링이나 조언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고 학창시절에 학업적 성취욕구가 높아 주변의 인정과 경쟁심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나타났다. 또한 형제관계는 부모님과과는 또 다른 관계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집안에도 저희들이 의사가 많거나 좀 이렇게 집안 환경도 좀 영향이 있을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근데 또 어린마음에 한의사가 되려면 공부 잘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애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공부 잘하는 친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랑. 욕심이랑 여러 가지로 그랬죠. (# 4)

굉장히 주변 관계에서 의미를 많이 찾는 사람인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생애 중요한 가치예요. 남자친구나 부모님한테도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날 인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릴 때도 그랬던 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 중요한 사람이 뻥하잖아요. 친구들, 엄마, 초등학교 선생님. 담임선생님한테 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컸어요. (# 11)

####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필요한 구조상의 조건으로 특정한 맥락 안에서 취해지는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강요하는 것이다(Corbin & Strauss, 2008). 본 연구의 중재적 조건은 “부모로부터 분리됨”과 “성취에 대한 욕구”로 나타났다.

##### (1) 부모로부터 분리됨

참여자들은 성장하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느끼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부모를 이해하려고 각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생이 된 이후에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족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개인에 더 관심을 쏟아 그로 인해 부모로부터 멀어짐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모를 하나의 개인으로 이해하게 되고, 부모가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내가 더 돌봐야하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하였다. 동시에 무조건적인 모델링으로서의 부모에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극복하고자하는 노력을 하며, 부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나타났다.

엄마도 사람이구나. 엄마가 나한테 짜증을 낸다거나 내가 엄마가 지금 이렇게 아는데, 다른 데에서 기분이 나쁘는데, 나한테 짜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거고, 또 내가 큰딸이니까 엄마가 나한테 엄마 입장을 이해 못해주면 굉장히 서운해 하는. 이해하게 됐어요. 크면서. 근데 그런 면이 있지만 굉장히 다른 삶을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를 알고 있고.. 있어요. (# 14)

엄마 아빠를 예전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볼 생각을 못했거든요. 하나의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거나, 꿈이라던가 아니면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식 입장에서만 했었지, 인간대 인간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어느 정도 제가 제 손으로 돈을 벌어서 제가 생활하다 보니깐, 약간 독립적으로 되잖아요.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 23)

##### (2) 성취에 대한 욕구

참여자들은 학창시절에 학업 성취가 높았던 이유는 스스로의 욕심과 또래에게 이기고 싶은 경쟁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학입학 준비와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에도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의 직업에서도 더 발전하고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많고 스스로 정한 목표에 도달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편할 거 같고, 교수만 되면 다 된 거 같고, 결코 그런 자유시간은 없고, 내가 또 욕심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누가 보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내가 또 원하는 다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다보니까 열심히 다니고 있죠. (# 3)

고3때가 완전 행복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고3이니까 모든 환경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마음껏 내가 공부했었으니까, 그리고 내 꿈에 가까웠어요. “내가 몇 개월 후에 어떤 과에 있을까?” 이 생각만 하면 너무 궁금하고 긴장, 와, 너무 흥분 되가지고, 진짜 제일 열심히 살았었을 때니까 정말 1분 1초도 아깝지 않게 보냈던 거 같아요. 너무 알차고 재밌었던 거 같아요. (# 7)

####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Corbin & Strauss, 2008). 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진로탐색과정”과 “직업에 대한 평가”이다.

##### (1) 진로탐색과정

참여자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에 따라 적성을 조금씩 깨닫게 되어, 전공과 직업을 스스로 찾고 경험해보고자 하였다.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기도 하였으며, 대입과 취업 준비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였다. 그러나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에 이르고자 노력하였다고 한다.

고민을 근데 많이 했죠. 그때 혼자 입시지도 학과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봤는데 너무 짤막하게 설명돼있어서 어떤지 잘 모르겠고 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옛날에 다녔던 한의원에, 그분 찾아다니면서 어떤 직업인지 물어보고 하고. (# 4)

재수할 때는요, 제가 다른 곳을 합격을 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재수를 시작한 건데, 그냥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겠죠. 내 친구들은 이미 다 대학을 가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뭐 선배 어찌구 뭐 그러는데, 내가 과연 재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 12)

방송, 관심을 가진 거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 방송반하고 이러면서 관심이 많아졌던 거 같아요. 방송하는 일은 계속 하고 싶었어요. 다양한 방송 분야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대학교 진학해서 이제 경험해보면서 아나운서 직종이 제일 잘 어울리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랑 가장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 21)

##### (2) 직업에 대한 평가

참여자들은 직업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함과 자신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물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문직이라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도 자기발전을 못한다고 느낄 때나 기대하던 업무와 실제 업무가 불일치함을 느낄 때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하는 사람들과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기도 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고 나타났다.

깔끔한 모습이고, 항상 웃어야 되는,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오픈형 자리는, 교수들, 뭐, 중역, 아니면 정말 중소기업인데 돈이 많은 인물이라서 눈의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는 눈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맞추려면, 또 저 자신을 가꾸고 좀 이렇게 센스 있고 매너 있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스트레스도 좀 쌓이고. (# 1)

일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의미의 뭐 자신감이나, 내가 나를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 더 도와주는 거라고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 9)

기본적으로 자기만족감이 크겠죠. 그 성취감이나 어떤 plus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무엇보다도 매일 매일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만들어내는 일을,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맨날 맨날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거를 보면서 만족감 내지는 뭐지 뭐라고 해야 할까 하는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뿌듯함. (# 13)

#### 6)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Corbin & Strauss, 2008).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으로서의 정체감”과 “미래의 결혼과 자녀관”, “일을 통한 자아정체감”,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음”으로 나타났다.

##### (1) 여성으로서의 정체감

참여자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융통성이 있고 발전 가능한 기회와 장점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로 인식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에서 남성이 더 기회가 많고 여성을 남성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차별을 겪을 때도 있다고 하였으며, 여성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정과 육아를 걱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의료계 내에서 남녀 차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과, 공부를 잘 끝까지 하지

못하고 남자에 밀려서 못하는 경우가, 레지던트를 3명 뽑으면 그 3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fellow 과정을, 경쟁이 면은 남자한테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여기가 뭐, 아주 만족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니까 남자였으면 더 좋은 자리에 갔을 거예요. (# 10)

질의문 쓰거나 법안을 만들거나, 이런 일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꼼꼼함이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세세하게 다 챙기고. 그런 면에서는 여성들이 예전보다 훨씬 장점을 발휘하고 있고. (# 17)

오히려 여자들이 크로스 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더욱. 일적으로 봤을 때는 융통성이 많아져요. 기본적으로 신체적 구조가 다르다보면 남자가 “야, 이것도 못해?” 이지만, 여자가 이것도 하면 “와, 여자가 이것도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플러스가 되는 말들이 많거든요. “나는 이것도 해. 난 여자야” 이런 거. 그런 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인거 같아요. (# 24)

(2) 미래의 결혼과 자녀관

앞으로 결혼이라는 발달과업을 거치게 될 참여자들은 일과 가정을 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을 키워온 것처럼 자녀를 믿고 자유롭게 양육하고 싶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두렵다고 하였다. 결혼보다는 일이 좋아 자신이 없지만 일과 가정을 모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밝혔다.

엄마랑 아빠랑 “넌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없었던 게, 그게 옳은 양육법인지는 사실 애를 길러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별로 강요해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 2)

직장에서는 직장 일을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거고, 집에서 는 집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집안일 때문에 회사 일을 등한시 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그냥 설렁설렁 다니기도 싫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둘 다 다 잘하고 싶겠죠. (# 14)

우리나라 사회가 애기를 낳아서 키우기 너무 무서운 사회인 거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클 수가 없는 거 같아서 그런 상상을 하기가 무서워요. 저는 두려워요. 이를테면은 제가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너 맘대로 커라,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키운다고 해서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는 충을 안 받으면서 잘 클 것이냐, 저는 사회가 그런 상상을

못하게 만들어 주는 거 같아요. (# 18)

(3) 일을 통한 자아정체감

참여자들은 직업에서 나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대체가능성이 없는 전문직에 종사하며 회소성 있는 사람이 나를 나타내줄 수 있다고 나타냈다.

자아적인, 정체성, 내가 어떤 아이이고 인정받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는 것 안에서 만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나를 대표하는 일이잖아. 누군가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자체가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 (# 13)

이 프로에 제가 아니라 다른 PD를 갈다 꽃아도 똑같은 거면, 저는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PD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안 나와” 라고 한다면 대체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대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같아요. (# 19)

일과 저가 별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이 제가 되는 거고, 이 일을 함으로써 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 24)

(4)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음

참여자들은 현재의 직업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한다고 하였다. 가끔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공부를 계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동시에 현재 직업과 상관없이 자신과 더 잘 맞는 일을 찾아보고 싶고, 미래에 더 발전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하는 “나아가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 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얼마이던 간에, 내가 그거를 하면서 스스로 좀 더 나아가는 거를 스스로 이제 보고 뭔가 발전되거나 발전하거나 내 스스로 뿌듯해 하는 사람, 끊임없이 발전하는 내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 19)

제가 갖고 있는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고 그 전문성, 그 전공에 대한 지식을 계속 여기랑 접목시키는 일을 계속하다가 저도 이제 정책보좌진은 000이 알아주고 유명하다. 이 바닥에선.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 20)

하는 일이 아무래도 스스로 계속 자기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제 창의적인 직업이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기개발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도태되기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이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 24)

3. 선택코딩

1) 핵심범주

: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

핵심범주는 Corbin과 Strauss(2008)가 제시한 핵심범주의 여섯 가지 준거를 적용하여, 자료에 자주 나타나고, 자료의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범주와 쉽게 연결되고, 이론을 함축하고, 이론이 단계적으로 진척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에 있어서 최대한의 변동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문직 여성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나에 대해 탐색하고 알아감으로서 흥미와 소질을 인식하게 된다. 이 시기의 나는 부모와 닮은 점, 닮고 싶은 모습, 극복하고 싶은 모습 등을 통해서 나에 대해 탐색하고 추상적인 나를 생각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점점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의 적성과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다양한 경험을 직접해봄으로서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알아간다.

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전공을 선택하고, 직접 공부하며 인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부모의 권유로 진로를 선택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탐색하고, 자신과 맞는 부분들을 찾아가며 현실에 수긍하게 된다. 직업을 갖기까지의 힘든 과정과 노력을 성취하며 새롭게 주어진 역할에서 새로운 정체감을 형성한다.

참여자들은 직업을 갖고 일을 수행하면서 성취감과 자기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나를 보여주고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나(self)의 모습을 찾고,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직업을 갖기 전에 기대하던 모습과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탐색해나간다. “나에 대해 잘 모르겠고 정의하기 어렵다. 현재 진짜 사춘기가 온 것 같다.” 라는 표현에서 계속해서 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잘 하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표현에서 성취욕구가 크고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즉 심리사회적 과정은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자아정체감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전해나간다. 현재는 스스로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진정한 자신이 누구지를 알아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함으로써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4. 유형분석

유형분석은 선택코딩 과정과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정형화하는 것이다 (Corbin & Strauss, 2008). 그 결과로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의 유형을 “현실 수긍형”, “갈등 타협형”, “자기 주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론의 발전과정으로 현상을 귀납적으로 이끌기 위해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들의 유형은 앞서 축 코딩에서 설정한 경험의 목표를 통하여 연구자가 가설적 정형화의 서술을 통하여 경험을 유형화한다.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이에 따른 핵심범주의 가설 16개의 진술문을 서술한 후 경험을 유형화한 유형분석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의 유형분석

패러다임	범 주	현실 수긍형	갈등 타협형	자기 주도형
인과적 조건	부모의 양육방식 부와 모의 역할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중심 현상	자아정체감 탐색	긍정적	긍/부정적	긍정적
맥락적 조건	부모를 모델링 사회적 지지체계	강함 약함	강함 강함	강함 강함
중재적 조건	부모로부터 분리됨 성취에 대한 욕구	부분적 중간	부분적 강함	전체적 강함
작용/상호작용 전략	진로탐색과정 직업에 대한 평가	소극적 만족	적극적 불만족	적극적 불만족
결 과	여성으로서의 정체감 미래의 결혼과 부모관 일을 통한 자아정체감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음	긍정적 긍정적 강함 약함	긍정적 부정적 강함 강함	긍정적 부정적 강함 강함

1) 현실 수궁형

“현실 수궁형”의 참여자들은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순탄한 자아탐색과정을 경험한 경우로,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은 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부모가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지만 진로나 고민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학업적 능력이 우수하였고, 순종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유나 기대에 부응했고 부모와의 갈등이 없는 편이었다. 진로선택과정에서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진로탐색기간이 짧고 소극적이었으며 불안감은 거의 없었다. 실패에 대해서 바로 수궁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자아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직접 진로를 선택하지는 않았더라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였다. 이 유형은 이제까지의 삶이 “굴곡이 없다.”라고 표현하며,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현하였고 미래의 발전을 원하기도, 안정적인 삶을 원하기도 하였다. “현실 수궁형”은 참여자 2, 5, 9, 16이 해당하였다.

2) 갈등 타협형

“갈등 타협형”의 참여자들은 부모에게서 성취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받았으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가 뚜렷하지만 부모의 기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경우로, 이 유형의 참여자들의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하게 나타냈다. 부모가 자신의 꿈과 기대하는 바를 이뤄주기를 바라였으며, 성장기에 기대와 압박을 답답하다고 느끼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고, 전공과 진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함과 동시에 부모를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부모이므로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의지대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였지만 직업을 경험하면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가 잘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다른 일을 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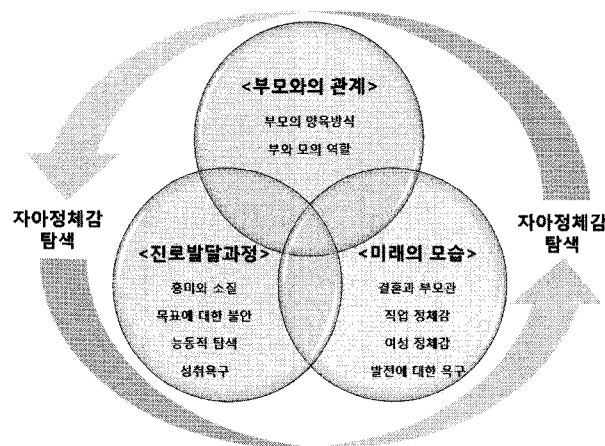
싶은 욕구가 강하였고, 미래의 자녀를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싶다고 하였다. “갈등 타협형”은 참여자 8, 10, 19, 23이 해당하였다.

3) 자기 주도형

“자기 주도형”의 참여자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존중해주는 부모가 많았으며, 참여자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약하며, 학업에 대한 강요가 거의 없었다. 또한, 참여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면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의 지지를 받았다.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이나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모델링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빨랐으며, 선택이나 노력에 대해 주체적이고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많고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에서 더 발전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일이 더 좋다. 나중에 자녀도 자신처럼 독립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과 자녀의 인생은 별개이다.”라고 밝히면서 개인으로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기 주도형”은 참여자 1, 3, 4, 6, 7, 11, 12, 13, 14, 15, 17, 18, 20, 21, 22, 24가 해당하였다.

5. 상황모형

상황모형은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조건인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들이 미시적 조건과 거시적 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분석도구이다. 이는 모든 다양한 부분을 통합하는 틀을 만드는 근거이론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며, 중심현상에 대한 보다 완벽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해준다(Corbin & Strauss, 2008). 본 연구에서는 상황모형을 통해 중심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조건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작용/상호작용」, 「진로



<그림 4>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의 상황모형

탐색과정에서 작용/상호작용, 「미래의 모습에서 작용/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상황모형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 1) 부모와의 관계에서 작용/상호작용

참여자들은 사회의 기초체계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self)에 대해 알아가고, 그 과정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의 역할이 영향을 준다. 부모의 기대와 지지를 받으면서 “나”에 대한 탐색을 했으며, 부모를 닮아 있는 모습에서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극복하고자 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장점으로 개발하며 부모와는 다른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때 사용하는 전략은 “부모로부터 분리됨”과 “부모를 모델링”, “진로 탐색과정”이었다. 이러한 전략들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의 역할 등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진로탐색과정에서 작용/상호작용

참여자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소질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인 탐색을 하였다. 자신의 학업적 성취 능력과 욕구와 기대, 부모의 지지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이때 작용하는 전략으로는 “성취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지지체계”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참여자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목표들과 외적으로 받는 영향들의 작용으로 자발적인 노력과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나갔다. 외부의 자극들에는 사회적 지지체계와 부모의 기대나 격려도 함께 포함되어 관계적 상호작용도 사용되었다.

### 3) 미래의 모습에서 작용/상호작용

진로탐색과정은 직업을 가진 현재에도 계속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에서 더 발전되는 모습을 위해 학업적 갈등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고 싶어 했다. 이들은 좀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으면서도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흥미로운 모습을 추구하였다. 이때 사용하는 전략은 “일을 통한 자아정체감 형성”, “직업에 대한 평가”, “여성으로서의 정체감”,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음”이었다. 이러한 전략들은 참여자들이 현재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기성찰을 통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 1. 중심현상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의 중심현상은 “자아정체감 탐색”이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자아

정체감 탐색의 의미는 부모,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서 직업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을 획득하고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은 노력”이라는 결과는 개인의 내적인 성장과 사회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큰 만족감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다고 하였고, 계속해서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더 잘 맞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Erikson(1968)은 청소년 후기의 관심은 특히 직업선택에 관한 것이며, 직업은 정체감의 발달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말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는 하위범주에서 “직업이 나와 잘 맞는지 모르겠음”, “또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음”이라는 개념들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한 고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현재 직장에 만족하면서도 평생 내가 만족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였다.

Sharf(1992)는 정체감이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목표 명료성과 안정성, 그리고 작업 환경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정체감의 성취는 직업의 목표가 결정되었을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미래의 직업 목표는 더 발전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청소년 시기에 학업적 성취에 대한 노력과 압박감으로 진정한 나(self)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간이 적었지만, 대학입학이라는 1차적인 학업성취를 이루게 된 20세 이후에는 자신의 적성이나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새로운 목표설정이 진로결정과 함께 혼합되어 직업선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에 외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에 대한 안타까웠던 시간들을 반성하기도 하였다. 현재 자기성찰의 시간들을 통해 긍정적인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자신이 겸손해지고자 노력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발전하고자 하는 등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어떤 것이 더 잘하는 것인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제까지의 진로탐색과 앞으로의 직업에 대한 고민, 즉 직업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나가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진정한 “자아”에 대한 탐색을 해오면서 정작 자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나”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하고 있고,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릴 수 없음에 대하여 혼란스러움을 나타내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현재를 “제2의 사춘기” 혹은 “오춘기”, “진정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30대 전후를 기점으로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의미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중심현상에 따른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의 중심현상인 "자아정체감 탐색"을 가져오는 인과적 조건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와 모의 역할"로 나타났다. 참여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부모의 양육방식", 특히 지지적이고 애정적인 양육방식이 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부모는 자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자녀가 최초로 접하는 중요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부모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것은 자녀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 안요섭(2009)은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특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녀들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부모의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타인들보다 성실하고 바른 성장 시기를 거칠 수 있었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자녀들에게 제공하였을 때 좀 더 긍정적인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님의 애정적인 태도나 수용적인 대화가 참여자들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없이 사랑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의견을 수용하고 함께 타협해나가면서 애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을 함과 동시에 있는 그대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의 고민이나 학업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눈높이를 맞추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조건적인 간섭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훌륭한 멘토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부와 모의 역할"이 각기 달랐고, 참여자들은 자신과 성격적으로 더 조화로운 부모가 있다고 하였다. 주로 아버지의 지지나 믿음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참여자들의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 살펴보면, 아버지의 역할은 사회적, 정서적, 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백승진(2008)은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에 비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컸으며, 이나영(2007)은 자녀의 사교성과 이타성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방임형일 때 낮았고,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온유형일 때 자녀들이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잘 맞는다.", "더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는 표현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아버지의 지지"와 "나와의 조화"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아버지가 참여자들에게 대화상대, 묵묵히 지켜봐주는 든든한 지지자가 됨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직업 역할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역할은 지지함과 동시에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주로 교육에 대한 정보나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머니가 담당하며, 자녀들은 "어머니"라는 대상에 대해 헌신과 아련함, 희생을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헌신적인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많은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자녀들은 간섭이나 강한 밀착, 답답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참여자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더 애정적이고 자유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녀의 관계는 같은 성으로서 "여성"이라는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모의 사회생활에 대한 아쉬움"으로 나타난 개념으로 보았을 때, 아쉬움이 자녀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변함에 따라 어머니가 이루지 못하였던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사회경제적 성취획득, 직업적 역할에 대한 아쉬움으로 어머니의 진취적인 지지가 참여자들의 직업적 정체성이나 여성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자아정체감 탐색"의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이 "부모를 모델링"과 "사회적 지지체계"였다. 아동기, 청소년 초기에는 부모를 닮아가고자 하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부모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거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등 닮아있는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였다. 개인의 어린 시절 경험은 그 후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는 주로 부모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 역할을 인식하고 성인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한다(이종승, 1981). 또한, 미래에 부모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평가로 닮고 싶은 모습들을 생각하기도 한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부모라는 환경이 자신이 자라는 가장 큰 환경이었으며 중요한 사회적 단위라고 하였다. 이러한 부모라는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자녀의 성격, 행동, 가치관, 자존감, 학업 등 모든 발달적인 측면에 영향을 줌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의식적 혹은 비의식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자녀가 모방하고 학습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모습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책 읽는 모습, 절약하는 모습 등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게다가 부모의 영향은 자녀의 사회적 관계나 진로선택 등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받기 때문에 직업적인 가치관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에 대한 숭선수범도 필요하다.

또한, "주변의 기대와 격려"와 "나와 형제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줌을 알 수가 있는데 참여자들은 직장

동료, 형제, 교사, 또래 친구, 이성 친구를 언급하며 그들에게 격려나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진로선택이나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난 “부모로부터 분리됨”과 “성취에 대한 욕구”는 맥락적 조건이 “부모를 모델링”하고 “사회적 지지체계”였다면, 참여자가 성장하면서 “자아정체감 탐색”이라는 중심현상에서 좀 더 자신(self)에 대한 내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됨”을 느끼는 시기는 보통 대학입학 이후로, 부모와 떨어져 자신만의 새로운 사회구성원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진로와 적성, 가치관 등을 깊이 생각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 현재에 와서는 부모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였는데, 부모자녀 관계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인 보호자와 보호받는 자의 성격이 변화하여 관계를 자녀가 주도하는 주체로 부모의 역할과 위치가 변화한다. 또한 다수의 참여자들이 부모가 예전보다 약해지는 모습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직업 생활을 하고 다양한 경험들로부터 부모를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다고 함과 동시에 무조건적인 존경과 모델링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모를 평가하고 부모와는 다른 삶을 추구하고 싶다고 하였다.

Blos(1983)는 이제까지 자신이 속해있던 관계적 맥락으로부터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지각하면서 자기정체감을 발달시켜가는 성숙의 한 과정으로서 내적지시, 자기조절, 자기책임의 능력을 개별화라고 하였다. 그는 청년후기와 성인초기를 자기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부모와 자신의 서로 다른 관심과 태도 등을 조화시키려는 적응과 통합과정이 일어나면서 자기조절이라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또한, Grotevant와 Cooper(1986)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와 지원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자신의 특성을 표현하고 고유한 관점을 주장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상태이며, 분리-개별화에 있어서 분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결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분리-개별화 경험의 정도가 한 개인의 성인으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과제 수행과 사회적 관계의 질을 결정하게 되어 성공적인 분리-개별화가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일상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부모가 되어도 좀 더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살고 싶으며, 자녀를 위해 지지나 격려, 독립성을 키워주고 싶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점점 부모로부터 분리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독립된 자아의식을 하고 발전하면서 부모를 한 개인에 대한 삶의 이해로 부모자녀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부모의 존경할 점을 닦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관에서 부모와 다른 부분들을 개선해나가면서 본인의 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갔다.

또한, 참여자들은 성장기부터 성취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였

는데, 특히 학업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고자 하였고 성취에서 오는 기쁨과 보람을 즐겼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학창시절에는 학업적인 면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요소는 적었다. 오히려 어떤 일에 성취욕구가 높은지, 어떤 일에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지에 대한 동기와 욕구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부모나 사회의 기대처럼 모든 자녀들이 학업적으로 높은 성취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참여자들도 학업적인 목표인 대학 입학을 이룬 후에는 목표가 사라지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실감으로 방황했다고 한다.

참여자 15는 대학교육을 받으면서 전공에 대한 공부 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가 없어 안타깝다고 하였다. 또한 몇몇 참여자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것인지, 또 다른 일에서 나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학업적인 성공이 사회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부모나 사회에서는 아동 혹은 청소년들에게 학업적인 성취만을 강조하고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나 다양한 직업, 전공에 대한 소개와 직접적인 경험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나 진로상담은 어떤 점수로 어떤 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전공에 따른 직업 방향에 대한 정보 이외에 나의 적성과 알맞은 전공, 그 전공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 대학의 커리큘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수나 선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청소년들이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부모들과 현장의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하여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대학과 전공을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원하던 직업을 노력하여 얻음으로서 성취를 이루고 직업에 대해 만족감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성취의 목표를 두고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러한 진로의 계속적인 발달을 이해하고, 발전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2. 핵심범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은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참여자들은 부모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탐색하다가 점점 진정한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취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자신을 탐색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와 함께



부모로부터 분리됨을 느끼고 직업정체성과 여성정체성에 대한 경험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자아정체감 발달경험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겪으며 진정한 자기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삶의 가치를 알고자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었다.

Mead(1935)에 의하면 인간은 그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를 채용할 때만이 자기 자신에 있어서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즉, 타인역할을 차용한다는 것(taking the role of the others)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 탐색”이라는 중심현상을 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부모를 동일시하고 모델링하였음을 알 수 있고, 탐색과정에서 부모 외에도 형제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범주를 통해 밝혀진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은 개별적인 자신을 찾고 성취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부모에 대한 동일시와 모델링을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전문직 여성들은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가 잘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의 역할이 이들의 분리-개별화를 설명하는 인과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성미(2001)는 아버지가 자율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면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는다고 하였고, 권현미(2010)는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바라보고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의 부모와의 성공적인 분리-개별화는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인 핵심범주의 부모와의 분리정도, 진로탐색과정, 성취욕구, 자아정체감 탐색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달라졌다. 즉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정도가 부분적인지 전체적인지에 따라, 성취욕구가 약한지 강한지에 따라, 진로탐색과정의 태도가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에 따라, 자아정체감 탐색의 본질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따라 다르게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성취 욕구에 대한 강도와 진로탐색과정의 태도를 취하게 되고, 자아정체감 탐색의 본질 등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세 가지 유형으로 보면, 현실 수궁형의 참여자들은 성취수준이 높고 자율적이기는 하지만 능동적인 탐색이 강하지 않고, 나에 대한 탐색이 현재에 와서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소극적인 편이었다. 갈등 타협형의 참여자들도 성취수준이 높지만 나에 대한 탐색은 현재에 와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시 갈등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자기 주도형의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능동적인 자기 탐색을 통해 발전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탐색이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고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정의하는데 중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부모에게서 자신을 탐색하고 진로탐색과정에서의 자신을 탐색하다가 점점 자신의 내면에 대해 탐색하였다. 또한, 학업적 성취나 직업획득, 발전에 대한 욕심이 크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탐색과정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성취에 대한 욕구”,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음”이란 범주에서 찾을 수 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방식과 모델링에 영향을 받고, 부모로부터 분리됨과 동시에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와 스스로 인정을 해야 성취감을 느끼고 주체적인 사람임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가 참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원하는 바를 찾아서 이루기를 바라며,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길 바라왔다. 부모가 자유롭게 스스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준 경우, 특히 자기 주도형으로 분류된 유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학업적 성취를 이루고 진로정보수집과 선택을 하였다.

또한, 앞으로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학문적인 지식을 쌓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음과 동시에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느끼고 싶다고 하였다. 전문직 여성이 자라면서 부모와 분리되지 못하고 진로와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독립적인 자아로 발달하지 못하여 정체감 형성에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전문직이라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의 직종을 획득하였으며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있지만, 명예나 사회적 인식 등의 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간다운 사람,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내면까지도 발전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성취욕구가 높으며 내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자아를 탐색하고 발전하고 성취하는 과정들을 통해 삶에 대한 자세를 확립하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더 높은 목표를 찾아갔다. 또한 이러한 목표가 자발적이고 내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발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스로 보는 자기의 모습과 타인이 보는 자기를 통합시키는 동시에 내적으로는 과거로부터의 자기일관성과 타인으로부터의 독자성을 음미하면서 “본래 있어야 하는 자신”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건전한 인간애로의 성숙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현재까지의 정체감, 현재의 가치, 장래의 목표를 통합하여 일관된 자기를 형성하려는 것의 의미한다(Newman & Newman, 2008). 하나의 명확한 자기 정의(self-definition)로 정리하는 과정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성인기로 갈수록 부모에게서 분리되는 것이 자아정체감을 온전히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감을 성취하였다가 혼란을 겪었다가 유예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진정한 자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미래의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정체감 탐색과정은 다양한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들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진로탐색과정에서, 미래의 모습에서 다양한 상호작용과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 과정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 3. 의의

본 연구는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과 관련하여 이론 및 연구부문에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해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핵심범주로 하는 실제이론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 경험을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조망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적인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경험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개념들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드러난 범주 간 패러다임에 관한 내용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세부적인 개념들은 “자아정체감 탐색”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한 시각적인 상황모형을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으며, 시간의 변화와 내적인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분류된 세 가지 유형은 각 유형별로 “자아정체감 탐색”을 조절하기 위해 전문직 여성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어떤 조건과 전략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자하는 연구목적에 달성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연구주체에 대한 방법론적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 제시는 자아정체감에 관한 심층적인 자료로서의 의의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높은 학업성취에 이르도록 필요한 방안들을 끊임없이 찾지만, 정작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모르며, 자신의 양육방법이 효과적이고 옳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양육에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배제되어 있는데, 자녀가 느끼는 아버지의 지지적이고 애정적인 태도와

직업 모델적인 역할은 어머니보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인과적 조건을 살펴보면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출산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의 강조를 위하여 부모교육을 받아야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와 모의 역할에 차이를 두고, 자녀와 부모의 기질과 성격을 잘 파악하여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편일률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각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하는 세부적인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중심현상 “자아정체감 탐색”의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은 “부모를 모델링”과 “부모로부터 분리됨”이었다. 이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사회를 경험하다가 점점 사회문화적인 큰 맥락의 사회를 경험하면서 부모의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같은 한 인간으로서의 정서적인 교류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의 전문직 여성의 진로발달과정은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직장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일치점을 찾기 위하여 계속해서 일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고 변경해나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취업과 적성에 혼란을 갖고 있는 현 사회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직장의 연봉, 권위, 명예를 중요시하는 전반적인 사회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전공 특성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만들거나, 대학이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닌 다양한 전공과 지식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의 흥미와 관련된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사회적·교육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부모가 자신의 기대나 원하는 방향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흥미도를 파악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지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탐색”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탐색단계」, 「진로발달과정에서 탐색단계」, 「미래의 모습에서 탐색단계」와 같이 3단계로 나뉘었다. 이 결과는 한 여성의 자아정체감이 계속해서 성취와 유예를 반복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를 밝힘으로써 각 단계별 자아정체감 발달양상을 세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인 핵심범주는 참여자들의 고민과 노력에 주목하게 한다. 전문직이라는 높은 사회경제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성취와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나(self)”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반복한다. 이들에게는 사회적 성취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취와 성장 모두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나 여성성보다 직업적인 면과 내면적인 성장, 자기 발전적인 목표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른이 되었다는 인식 때문에 쉽게 이러한 고민들을 나누고 조언을 구할 지지체계가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전문직 여성들을 위한 강화 프로그램 혹은 자기개발과 심리적 지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권현미(201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아강도, 자아정체감과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성미(2001).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순희(2003). 여자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아청 · 이승국(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신뢰감과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7(1), 217-229.
- 백승진(2008). 대학생의 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요섭(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성은(2005). 지방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71-180.
- 이경혜(1997).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발달에 관한 연구경향과 전망에 관한 일고찰. *한국아동교육학회*, 6(2), 143-153.
- 윤형숙(1999). 여성의 직업생활 경험과 삶의 질: 전문직 여성과 비공식부분 여성의 직업생활 만족도의 비교분석. *여성연구*, 7(1), 49-94.
- 이기숙 · 고정자 · 권희경 · 김득성 · 김은경 · 김향은 · 옥경희 (2009). *현대 가족관계론*. 서울: 파란마음.
- 이나영(2007). 고등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학교적응과의 상관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승(1981). 학업성취에 관련된 변인의 한 인과분석. *한국교육학회*, 19(3), 109-120.
- 이지영(2003).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 및 자아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지선(200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2007). *한국표준직업분류표*. www.nso.go.kr.
-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www.nso.go.kr.
- Blos, P. (1983). *Adolescence*. Baden-Wuerttemberg, Stuttgart: Free Press.
- Corbin, J., & Strauss,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3r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W. W. Norton & Co.
- Gilligan, C. (1982). 허란주 역(1997). *다른 목소리로: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서울: 동녘.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of Qualitative Research*. N.Y.: Aldine.
- Grotevant, H., & Cooper, C. (1986). Individuation Family Relationships: A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nd Role Taking Skill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9, 82-100.

□ 접수 일 : 2010년 11월 08일

□ 심사 일 : 2010년 12월 03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2월 01일